

고구려 벽화 의복에 관한 연구

- 집안지역과 평양지역 벽화의 비교연구 -

김 정 호* · 이 미 석**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Kokuryo's Costumes of the Mural Tombs

- Comparison between area of Jipan and Pyongyang -

Chung-Ho Kim* · Mi-Seok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 Nam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 Nam University**

(2004. 11. 11 투고)

ABSTRACT

Kokuryo mural tombs are located in Jipan and Pyongyang, where were capital cities of Kokuryo.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performed about costumes in Kokuryo mural tombs so far, the studies comparing regional differences are rare.

In this study, we tried to compare about the costumes in Kokuryo mural tombs between Jipan, where was the capital city in early period (BC37-AD426) and Pyongyang, where was the capital city for 241 years after the King Jang Su moved.(AD427-AD66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Jipan and Pyongyang in the shape of Chima(skirt) and the direction of Yeomim (adjusting the necklines). While there was only one type, long and narrow pleated skirt in Jipan area, another type of Chima was existed in Pyongyang area including the one in Jipan.

Also, the direction of Yeomim was different.

Left was popular in Jipan while it was right in Pyongyang.

Moreover there are no man's Po(coat) with straight collar which was considered as a basic shape in Kokuryo mural tombs costumes so far. Also we found that Baji(pants) was an ordinary woman's costume, not only for underwear.

Key words: kokuryo mural tombs(고구려벽화), man's coat(남자포), woman's skirt(여자치마), woman's pants(여자바지), attire(차림새)

I. 서론

고구려 고분벽화는 역사적 변천에 따라 수도였던 오늘날의 집안현(輯安縣) 통구(通溝)지역과 평양(平壤)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지역, 그리고 안악(安岳)주변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있다. 그동안 고구려 고분벽화 의복 연구는 여러각도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C.37년 고구려 건국이후 약 400여년간 고구려의 초기 수도였던 집안지역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과 장수왕의 평양천도(427)이후 약 200여년간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지역 고분벽화(안악지역 포함)에 나타난 의복에 지역별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고구려 기본 의복(襦,袴,裳,袍)의 형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집안과 평양지역 고분벽화에 나타난 의복중에서 첫째, 남·녀 포(袍), 둘째, 남·녀 유(襦), 셋째, 여자 고(袴) 네째, 여자 상(裳)의 형태와 차립새 등에 있어서 두 지역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재까지 밝혀진 고분벽화중 지역별로 인물풍속화가 잘 그려진 벽화를 중심으로 집안지역 벽화 8개¹⁾와 평양지역 벽화 17개²⁾에 나타나있는 의복을 토대로 분류, 분석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벽화가 발견될 가능성과 문헌이 나타날 경우도 있음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혀둔다.

II. 고구려 복식

1.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 복식

700여년을 깨끗이 버텨온 강대국가인 고구려이나 관련사료가 부족하여 오히려 같은기간 동안 35개의 나라가 있었던 중국측의 자료를 인용하여 고구려를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三國史記」권20 고구려 본기 제8 嬰陽王 11년 기록에 의

하면 “國初로부터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어떤 사람이 國史일백권을 기술하여 서명을 留記라 하였던바 이때에 이르러 그것을 冊修하였던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으나 전해 내려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한국측 사료인 「三國史記」, 「三國遺事」와 눈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고구려 고분벽화의 중요성은 매우크다.

고구려 복식에 관한 옛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표 1>³⁾과 같으며, 「三國史記」에서는 고구려복식에 관하여 「通典」, 「北史」, 「新唐書」, 「冊府元龜」에 기록된것을 인용하고 있다.

<표 1>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복식

後漢書 三國志 梁書 南史 北史	“그들이 公事로 모일 때의 의복은 錦繡로 만들고 金銀으로 장식한다. 大加와 主簿가 머리에 쓰는 것은 책과 모양이 비슷한데 뒤가 없고 小加는 折風을 쓰는데 모양이 弃과 같다”
魏書	“머리에는 절풍을 쓰는데 그 모양은 변과 같다. 그 옆에다 새의 깃을 꽂는데 귀천에 따라 차이가 있다.(중략) 그들이 공사로 모일때의 의복은 모두 錦繡로 만들고 금으로 장식한다”
南齊書	“高句麗俗이 窮袴를 입고 折風 ...梁을 쓰는데 이를 책이라 부른다”
周書	“남자 어른의 옷은 소매가 넓고 바지통이 크며 흰 가죽띠에 누런 가죽신을 신는다. 그 관은 蘇骨이라고 하는데 자주비단으로 만들고 금과 은으로 여러 가지 장식을 한다. 그들 중에서 관품을 가진 자는 새 깃 두 개를 꽂아 다른 사람과 구분을 하며 부인의 옷은 저고리나 치마 끝에 모두 선을 두른다”
隨書	“사람들은 모두 피관을 쓰는데 使人들은 새깃을 꽂는다. 貴者는 관에 紫羅를 사용하고 금으로 장식을 한다. 大袖衫에 大口袴를 입고 素皮帶를 두르며 黃草履를 신는다. 부인들의 치마나 저고리에는 襪을 들렀다”
新唐書	“왕은 5색 비단옷을 입고 白羅로 관을 만들어 쓰며 혁대에는 모두 금테를 두른다. 대신들은 靑羅관을 쓰고 그 다음은 絳羅관을 쓰는데 새 깃들을 꽂았고 금과 은을 섞어 테를 두른다. 저고리는 통소매이고 바지는 통이 크며 白韋帶를 두르고 黃草履를 신는다. 서인들은 갈옷을 입고 변을 쓴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쓴다”

通典	<p>“대가(大加)와 주부(主簿)는 모두 책(幘)을 착용했는데 관책(冠幘)과 같으나 뒤가 없고, 소가(小加)는 절풍건(折風巾)을 썼는데 형상이 고깔(弁)과 같았다.(중략)고려에서 사신이 왔는데 궁고(窮袴)를 입고 절풍(折風)을 썼으므로...이것은 바로 옛고깔(古弁)의 유상(遺像)이라 대답하였다.”</p>
翰苑	<p>“고려기에 이르기를 그 나라 사람들은 역시錦이라는 비단을 짠다.紫地바탕에 무늬놓은 것이 으뜸이고 다음에는 五色錦이 있고 그 다음에는 雲布錦이 있다”</p>
三國史記	<p><通典>에 이르기를 “樂工人은 紫色羅紗의 帽子에 새 깃으로 장식하고, 황색의 큰 소매옷에 紫色의 羅紗띠를 띠었으며, 통 넓은 바지에 붉은 가죽신을 신고, 오색끈을 매었다. 춤추는 네 사람은 뒤에 복상투를 틀고, 붉은 수건을 이마에 동이고 금 고리로 장식하며, 두 사람은 황색 치마 저고리와 赤黃色 바지요, 두 사람은 적황색 치마 저고리 바지인데, 그 소매를 극히 길게하고 검은 가죽신을 신었으며 쌍쌍이 함께 서서 춤춘다”</p> <p><北史>에 이르기를 “고구려 사람은 모두 머리에 折風巾을 쓰는데, 그 모양이 弁과 같다. 士人은 두 개의 烏羽를 더 꽂고, 귀한자는 그 관을 蘇骨이라 하는데, 흔히 紫色羅紗로 만들고 금은으로 장식한다. 큰 소매의 적삼과 통이 큰 바지를 입고, 흰 가죽 띠에 누런 가죽신을 신는다. 부인은 치마 저고리에 襪을 더한다”</p> <p><新唐書>에 이르기를 “고구려 왕은 오색무늬의 옷을 입고 흰 羅紗로 관을 만들며, 가죽띠에는 金釧을 하였다. 大臣은 靑羅冠, 다음은 絳羅冠을 쓰는데, 두 개의 새깃을 꽂고 금은잡구로 장식하였다. 적삼은 통이 넓고 바지는 아구리가 크며, 흰 가죽띠에 누런 가죽신을 신었다. 서민은 거친 베타을 입고 변을 쓰며,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틀렀다”</p> <p><册府元龜>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금수와 금은으로 장식하며, 大加와 主簿는 巾幘을 쓴다. 그 모양이 冠幘과 같되 뒤가 없다. 小加는 절풍건을 쓰는데 모양이 변(弁)과 같다”</p>

이와같이 여러문헌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계속 같은 내용을 재인용한 것을 볼때, 실제로 그시대의

상황을 잘나타내주고 있는 벽화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고구려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에 관한 연구는 1947년 이 여성이 「朝鮮服飾考」를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남북한 학자들에 의해 많은연구가 이루어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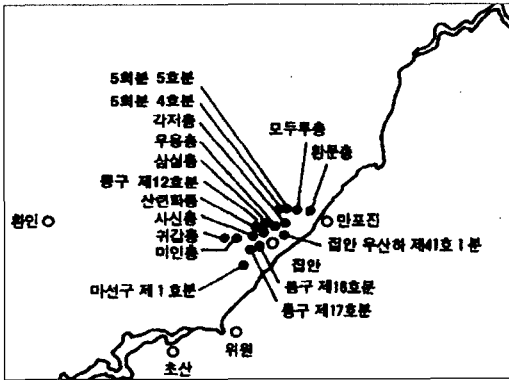
그간의 복식 연구동향은 형태연구와 신분별 복식 연구, 복식조형미 연구로 대별된다. 형태연구는 의복, 두식, 두발, 대, 신, 장신구의 양식 및 직물, 문양 연구로 구분되었고, 의복영역은 유(襦), 상(裳), 고(袴), 포(袍)의 양식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의복구성요소(옷깃, 섶, 소매, 선, 여밈법 등)의 형태연구와 차림새 양식연구가 있었다.⁴⁾ 지금까지 발표된 고구려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과 사회계층⁵⁾”, “고구려 고분벽화속의 복식에 관한 연구⁶⁾”,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본 고구려 복식에 관한 연구⁷⁾”,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연구⁸⁾”, “덕흥리 고분벽화의 복식사적 연구⁹⁾”, “고구려인의 복식문화 고찰-집안지역 고분벽화를 중심으로-¹⁰⁾”, “고구려복식연구¹¹⁾”, “고구려의 복식구조¹²⁾”, “중국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과 주변지역 복식 비교 연구¹³⁾”, “고분벽화를 중심으로한 고대 우리 복식 연구¹⁴⁾”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연구¹⁵⁾”, “최근 안악에서 새로 발견된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 년대에 대하여¹⁶⁾”,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복식연구-장천1호분과 오회분을 중심으로-¹⁷⁾”,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복식¹⁸⁾”, “고구려 고분벽화의 조형적 특성과 복식의 표현 연구¹⁹⁾”, “고구려 각저총 벽화 연구²⁰⁾”, “고구려 옷에 반영된 계급 신분관계의 고찰²¹⁾”, “안악제3호무덤의 복식에 대하여²²⁾”, “고구려 고분벽화(무용총,삼실총,신삼총,각저총)에 나타난 한국고대 복식에 대한 고찰²³⁾”, “고구려의 여자 옷에 관한 연구²⁴⁾”, “고구려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²⁵⁾”, “고분벽화에 묘사된 복식의 조형미²⁶⁾”,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미의 고찰²⁷⁾”,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미 연구²⁸⁾”, “고구려 벽화 복식과 고송총 벽화 복식의 비교연

구29)”, “고분벽화에 표현된 복식형태의 비교연구30)”, “고구려 관모에 관한 고찰31)”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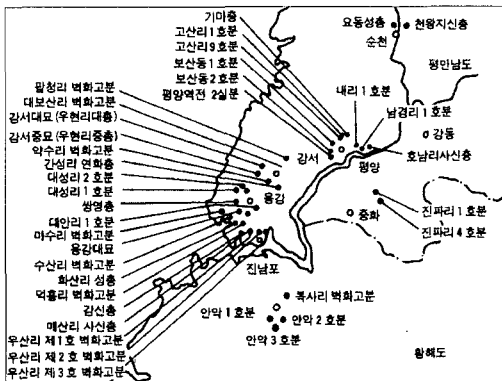
Ⅲ. 집안지역과 평양지역 고분벽화속의 복식

고구려는 처음 졸본의 오녀산성에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해발 820m나 되는 높은 산성은 방어성으로는 유리하지만 일상생활은 부적합하여 유리명왕 22년(AD3년) 집안(국내성)으로 서울을 옮겼다. 이곳은 장수왕15년(AD427년) 평양으로 옮길때까지 424년간 고구려의 서울이었다.



〈그림 1〉 집안지역 고구려고분 분포도

(출처: <http://dugok.x-y.net/kor-his/gobun/gobun-tonggu.htm>)



〈그림 2〉 평양지역 고구려고분 분포도

(출처: <http://dugok.x-y.net/kor-his/gobun/gobun-pyongyang.htm>)

고구려는 그 수도였던 국내성 일대의 통구지방(현재 중국집안지역<그림 1>)과 평양 및 그 주변지역 <그림 2>에 수많은 고분을 남겨놓았다.

고구려고분은 외관상 석총과 토총으로 나누어지는데 석총은 지상에 돌 더미를 쌓아 올리는 그 중간에 시체를 넣어 두는식이다. 토총은 석실위에 봉토를 덮는 것을 말하며 내부에 있는 벽화가 주목된다. 토분의 기본형은 입구와 연도가 달린 횡혈식 석실로 되어 있다. 벽화는 일반적으로 석실벽면에 두껍게 회칠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으나 물갈이한 판석에 직접그린것도 있다. 고구려고분은 약 4세기 말부터 7세기초에 걸쳐 축조되었다.³²⁾

벽화내용은 내용의 주제에 따라 첫째, 인물풍속도 둘째, 인물풍속도 및 사신도 셋째, 사신도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고분벽화는 역사적 변천에 따라 수도였던 집안현 통구지방, 평양인근 대동강 유역지역, 그리고 안악주변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³³⁾

본 연구에서는 집안과 평양지역 고분벽화에 나타난 남·녀 포(袍), 남·녀 유(襦), 여자 고(袴), 여자 상(裳)의 형태와 차림새에 있어서 두 지역간에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한 고분벽화는 지역별로 인물풍속화가 잘 그려진 집안지역 8개의 고분벽화와 평양지역 17개의 고분벽화를 선정하였다.<표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II」³⁴⁾, 「집안고구려고분벽화」³⁵⁾, 「고구려 고분벽화」³⁶⁾, 「고구려특별대전」³⁷⁾, 「고구려문화전도록」³⁸⁾, 「한국미술전집4(벽화)」³⁹⁾, 「한국미술 I (고대,고려)」⁴⁰⁾ 등이다.

1. 남·녀 포(袍)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포(袍)의 깃의 형태는 크게 곧은깃과 둥근깃으로 대별되며, 곧은깃은 V자 모양, 둥근깃은 U자 모양이다.

곧은깃의 형태는 깃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교차되어 여며지는 형태(그림4~12, 그림46~50)와 곧은깃의 맞임 형태(그림13~15, 그림17~18)로 나누어볼수 있다. 또한 둥근깃의 형태는 둥근깃의 여밈

<표 2> 지역별 고분벽화 선정

집안지역 고분벽화	평양지역 고분벽화
각저총 (길림성 집안현)	안악3호무덤(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
무용총 (길림성 집안현)	감신총(남포시 와우도구역 신령리)
통구12호무덤 (길림성 집안현)	덕흥리벽화무덤(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동)
마선구1호분 (길림성 집안현)	수산리벽화무덤(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
삼실총 (길림성 집안현)	안악2호무덤(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장천1호분 (길림성 집안현)	평양역전무덤(평양시 중구역 연화동)
5회분 4호묘 (길림성 집안현)	고산동7호무덤(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동)
5회분 5호묘 (길림성 집안현)	고산동10호무덤(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동)
	동암리벽화무덤(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약수리벽화무덤(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
	팔청리벽화무덤(평안남도 대동군 팔청리)
	별무덤(남포시 와우도구역 신령리)
	대안리1호무덤(남포시 대안구역 은덕동)
	쌍영총(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수렴총(남포시 와우도구역 화도리)
	개마총(평양시 삼석구역 노산리)
	장산동1.2호무덤(평양시 서성구역 장산동)

이 있는 듯한 형태(그림16, 그림19)와 여밈이 없는 듯한 형태(그림23)로 나누어볼수 있다.⁴¹⁾

1947년 이여성이 「조선복식고」를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⁴²⁾ 우리나라 남·녀 포(袍)의 기본형은 저고리의 모습과 같이 끈은깃에 소매끝과 앞단, 도련 등에 선이 둘러져 있으며, 길이는 종아리까지 오는 긴 형태이다(그림3).



<그림 3> 상대복식의 기본형
(출처: 조선복식고, p. 17)

그러나 벽화에서는 주로 여자 포(袍)에서만 보이며(그림5~12, 그림47~51), 벽화에 나타난 남·녀 포(袍)의 형태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집안지역과 평양지역 두 지역에서 모두 고유 포(袍)의 형태

(그림3)로 알려진 직령교임의 형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지 직령교임형태의 포(袍)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무용총벽화의 승려인듯한 사람이 입고 있는 포(袍) 뿐이다(그림4).

이와같이 기본포로 알려진 직령교임형태의 고유 포(袍)는 고분벽화속의 남자들 복식에서는 보이지 않을뿐아니라, 이 논문의 앞부분에 제시한 고구려 복식 관련 문헌에서도 직령교임형태의 포(袍)에 관한 기록⁴³⁾은 찾아볼수가 없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고구려 남자 포(袍)의 기본형태로 알려졌던 직령교임형태의 포(袍)가 집안지역, 평양지역 벽화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볼때 고구려 남자들의 일상복은 유(襦)와 고(袴)라고 생각되어진다.

집안지역 고분벽화 무용총, 각저총의 주인공들이 착용한 복식(그림26~27)은 유와 고를 착용하고 있어 지배층 남자들도 포(袍)를 착용하지 않고 유(襦)와 고(袴)만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양지역 고분벽화 주인공들은 주로 소매통이 넓고 품이 넓은 헐렁한 포(袍)를 착용(그림13, 그림15, 그림20右, 그림21~23)을 착용하고 있어, 외국문화와의 접촉이 큰 상류층에서만은 소매통이 넓은 헐렁한 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두 지역에서 모두 선이 둘러져 있는 직령교임형태의 포(袍)가 나타나고 있다(그림5~12, 그림46~50, 그림53~55). 다만 여밈형태에 있어서 집안지역에서는 주로 좌임형태로 평양지역에서는 주로 우임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포(袍)는 유(襦)·고(袴) 혹은 유(襦)·상(裳) 위에 착용하는 옷으로서, 벽화에서 보면 남자의 경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착용했을뿐이며, 여자가 착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

집안지역 여자의 옷차림을 보면 유(襦)와 상(裳)만을 착용한 차림새는 볼수없으며, 상(裳)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포(袍)를 착용(그림5~12, 그림47~51)하였다.

그러나 평양지역에서는 포(袍) 없이 유(襦)와 상(裳)만을 착용(그림52~53, 그림58~60)하기도 하여 두지역간에 차림새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집안지역 남·녀 袍와 차림새-



<그림 1> 직령포
무용총
(출처: 고구려 이야기, p. 188)



<그림 5> 여자포
장천1호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 17)



<그림 6> 여자포
장천1호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 17)



<그림 7> 여자포
장천1호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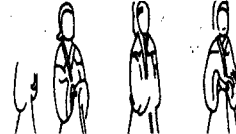
<그림 8> 여자포
장천1호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 17)



<그림 9> 여자포
삼실총
(출처: 집안고구려 고분벽화, p. 163)



<그림 10> 여자포
삼실총
(출처: 집안고구려 고분벽화, p. 166)



<그림 11> 여자포 마선구1호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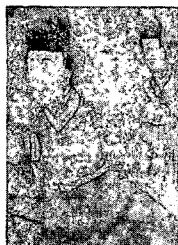


<그림 12>
여자포
장천1호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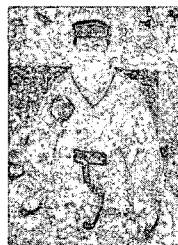
- 평양지역 남·녀 袍와 차림새 -



<그림 13> 남자포
안악3호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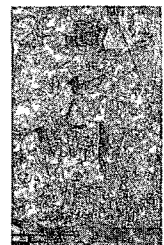
<그림 14> 남자포
안악3호분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37)



<그림 15> 남자포
덕흥리벽화무덤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130)



<그림 16> 남자포
덕흥리벽화무덤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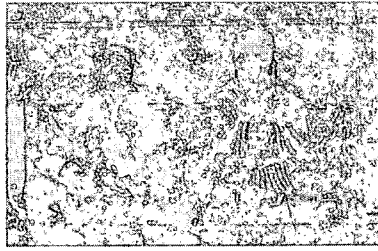
<그림 17> 남자포
수산리 벽화무덤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192)



〈그림 18〉
남자포수산리
벽화무덤
(출처:북한의문
화재와문화유적
I, p. 200)



〈그림 19〉
남자포감신총,
(출처:북한의문
화재와문화유적
I, p. 81)



〈그림 20〉 여자포와 남자포 쌍영총
(출처: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p. 73)



〈그림 21〉
여자포
안악3호분
(출처:북한의문
화재와
문화유적 I,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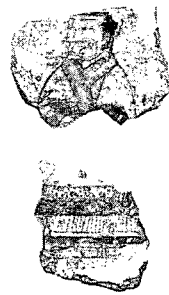
〈그림 22〉 여자포
안악3호분
(출처:북한의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38)



〈그림 23〉 여자포
감신총
(출처:고구려고분
벽화, p. 506)



〈그림 24〉 여자포
개마총
(출처:북한의문화
재와문화유적 II,
p. 124)



〈그림 25〉 여자포
동암리 벽화무덤
(출처:북한의문화
재와문화유적 I,
p. 246)

2. 남·녀 유(襦: 저고리)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대부분의 유(襦)는 곧은깃(直領)이며 앞이 터져 왼쪽으로 여미거나 오른쪽으로 여미는 형태로 소매통이 좁고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옷깃, 섶, 밑단, 수구에 선(襟)이 둘러져 있고 허리에는 띠(帶)를 매는 형태(그림26~33, 그림37~46)이다.

또한 둥근깃(그림34, 그림59)과 맞입(그림32, 그림35, 그림60), 통넓은 소매, 그리고 길이가 엉덩이에서 무릎사이까지 내려오는 장유(長襦)도 보인다. 선(襟)은 색깔과 문양이 다양하고 바탕천과 대비되어 유(襦)의 형태를 뚜렷이 해주었다.

유(襦)의 여밈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여밈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집안지역에서는 5세기 초부터 6세기 말까지 모두 좌임으로 나타나 년대 변화에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평양지역에서는 4세기 중엽부터 우임으로 시작하여 5세기경 좌임·우임이 혼용되었다. 우임이 우세하다가 6세기초 우임으로 나타나 평양지역에서는 년대에 관계없이 우임이 우세하였음을 알수 있다.

즉, 집안지역은 시대에 따라서도 좌임에서 좌임으로 나타났고 평양지역은 좌임이 혼합된 가운데 계속 우임이 우세한 것을 알수있었다.

집안지역 벽화에서 보이는 여자 유(襦)의 형태는 곧은깃의 엉덩이 길이(그림37~43)가 대부분이나 상(裳)을 유(襦)위에 입은 형태(그림36)도 보인다.

또한 남자의 기본복 차림으로는 주로 유(襦)·고

(袴) 차림(그림26~31)이거나, 유(襦)·고(袴)에 배자형태의 옷을 덧입은듯한 차림도 보인다(그림29).

또한 기본유보다 소매만 짧은 곧은깃의 유(襦)⁴⁵⁾와 고(袴)를 착용한 차림도 보인다(그림30~31).

집안지역 여자의 경우는 기본복으로 유(襦)·고(袴) 차림(그림37~43) 이거나 유(襦)·상(裳)·포(袍)를 착용(그림5~12, 그림47~51)하였으며, 포(袍)의 착용없이 유(襦)·상(裳)만을 착용한 차림새는 찾아볼수가 없다.

평양지역 벽화에서 보이는 남자의 기본복 역시 유(襦)·고(袴) 차림 이며(그림32~그림35), 17개의 벽화중에서 안악3호분(3명), 덕흥리(4명), 수산리(1명), 감신총(1명), 쌍영총(1명) 벽화에서만 상류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소매통이 넓고 품이 헐렁한 포⁴⁶⁾를 착용(그림13~그림19, 그림20右)하고있다.

여자의 경우는 기본복으로 유(襦)·고(袴) (그림44~46) 또는 유(襦)·상(裳) (그림52~53, 그림58~60)을 착용하거나 유(襦)·상(裳)·포(袍)를 착

- 집안지역 남·녀 襦와 차림새 -



<그림 26>
유(襦)·고(袴) 차림새 무용총, (출처:고구려 이야기, p. 188)



<그림 27>
유(襦)·고(袴) 차림새, 각저총 (출처:고구려 이야기, p. 144)



<그림 28>
유(襦)·고(袴) 차림새 무용총, (출처:고구려 이야기, p. 162)



<그림 29>
유(襦)·고(袴) 차림새 삼실총, (출처:집안고구려고 분벽화, p. 162)



<그림 30>
유(襦)·고(袴) 차림새, 무용총 (출처: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I, p. 275)



<그림 31>
유(襦)·고(袴) 차림새, 무용총 (출처:고구려 이야기, p. 23)

- 평안지역 남·녀 襦와 차림새 -



<그림 32>
유(襦)·고(袴) 차림새, 안악3호분, (출처:북한의문화재와 문화유적 I, p.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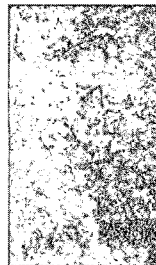
<그림 33>
유(襦)·고(袴) 차림새, 수산리 벽화고분, (출처: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I, p. 190)



<그림 34>
유(襦)·고(袴) 차림새 감신총 (출처: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I, p. 80)



<그림 35>
유(襦)·고(袴) 차림새 덕흥리 (출처:고구려 이야기, p. 176)



<그림 36>
저고리·치마차림새 안악3호분 (출처:고구려 이야기, p. 192)

용(그림54~57)하고 있다.

3. 여자 고(袴: 바지)

벽화에 보이는 고(袴)의 형태는 길이나 넓이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바지 통이 넓은 고(袴)는 부리를 오무려서 입기도하고 행전을 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여자 기본복 차림새로는 유(襦)·상(裳)이라고 알려져왔다.

그러나 집안지역 고분벽화중 인물풍속화가 그려진 무용총(그림37), 각저총(그림38), 삼실총(그림39), 장천1호분(그림40~그림43)에서는 유(襦)·고(袴)차림새의 여자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평양지역 고분벽화에서는 수산리(그림44), 동암리(그림45), 안악2호분(그림46)에서도 유(襦)·고(袴) 만을 입은 차림새를 볼수있다.

1962년 북한의 문화유산 2권에 발표된 최원희의 "고구려 여자 옷에 관한 연구" 39쪽에 보면 유(襦)·고(袴)를 입은 여자가 안악3호분 무덤행렬도의 시녀 한명 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1982년 「한국의복식」에 발표된 유송옥의 "고구려의 복식구조" 62쪽에서도 여인들이 하의로 바지를 입은 경우의 예로 안악3호분 행렬도 시녀만을 들고 있다.

1978년 「한국복식의 역사」68쪽 에서 이은창은 "삼국시대에 이르러서 그 초기에 남녀가 구별없이 소매가 좁고 길이가 긴 저고리와 통이 좁은 바지를 입은 장유세고(長襦細袴)의 의복을 입었다. 그러다가 점차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 유상제(襦裳制), 또는 군의(裙衣)를 입는 착군제(着裙制),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는 포의제(袍衣制), 또 아래와 위가 연결된 내리닫이 옷 등으로 변하여 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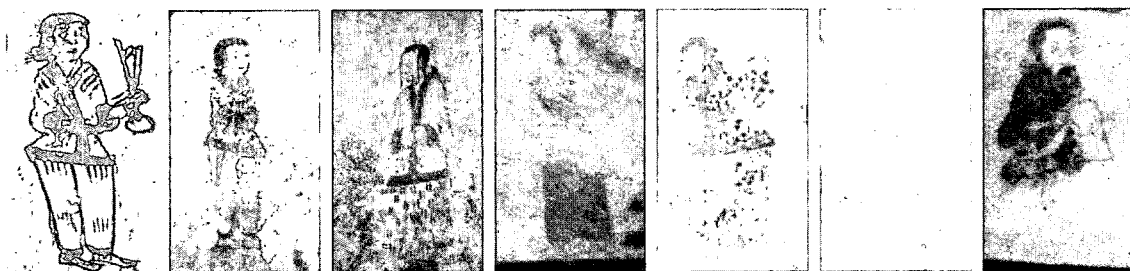
현대 여성복식에서 바지는 실용적 측면으로 매우 인기가 높으나 실제 입혀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일이다. 그런데 1500여년전 고구려 벽화속에서의 여자들은 흔히 활동에 편리한 바지를 입었는데, 이는 동시대 서방의 옷차림과 후시대 옷차림을 비교할 때 선구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4. 여자 상(裳: 치마)

고분벽화에 보이는 여자 상(裳)은 길이가 다양하여 신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것과 속바지가 보일 정도의 짧은 길이가 있다.

형태는 주로 허리에서 밑단까지 곱게 잔주름을 잡은 잔주름치마가 많으며(그림47~57), 주름이 넓은 것도 있고, 치마밑단에 선을 낸 치마(그림47, 그림49, 그림54~55)도 보이며 두줄의 선이 둘러 있는

- 집안지역 여자 袴와 차림새 -



〈그림 37〉 유(襦)·고(袴) 차림새 무용총, (출처:집안고구 려고분벽화, p. 131)	〈그림 38〉 유(襦)·고(袴) 차림새 각저총, (출처:집안고구 려고분벽화, p. 153)	〈그림 39〉 유(襦)·고(袴) 차림새 삼실총 (출처:집안고구 려고분벽화, p. 163)	〈그림 40〉 유(襦)·고(袴) 차림새 장천1 호분(출처:집안 고구려고분벽화, p. 119)	〈그림 41〉 유(襦)·고(袴) 차림새 장천1호분(출처: 집안고구려고분 벽화, p. 111)	〈그림 42〉 유(襦)·고(袴) 차림새 장천1호분(출처: 집안고구려고분 벽화, p. 105)	〈그림 43〉 유(襦)·고(袴) 차림새 장천1호분(출처: 집안고구려고분 벽화, p. 118)
---	---	--	--	--	--	--

- 평양지역 여자袴와 차림새 -



〈그림 44〉 유(襦)·고(袴) 차림새 수산리 (출처: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1, p. 194)



〈그림 45〉 유(襦)·고(袴) 차림새 동암리, (출처: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1, p. 246)



〈그림 46〉 유(襦)·고(袴) 차림새 안악2호분 (출처: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1, p. 212)

- 집안지역 여자裳과 차림새 -



〈그림 47〉 여자裳 삼실총 (출처:집안고구려고분벽화, p. 163)



〈그림 48〉 여자裳 삼실총(출처:집안고구려고분벽화, p. 166)



〈그림 49〉 여자裳 무용총(출처:집안고구려고분벽화, p. 105)



〈그림 50〉 여자裳 삼실총 (출처:집안고구려고분벽화, p. 152)



〈그림 51〉 여자裳 무용총 (출처:북한의문화재와 문화유적 1, p.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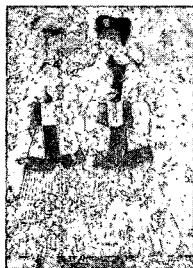
경우⁴⁷⁾도 있다.(그림50右, 그림54) 또한 색동치마(그림58), 쪽치마(그림59~60)도 있다.

집안지역 여자 상(裳)의 형태는 잘게 주름잡힌 형태의 주름치마가 대부분이며, 포(袍) 없이 유(襦)

- 평양지역 여자 裳과 차림새 -



〈그림 52〉 여자 裳
쌍영총(출처: 북한의
문화재와문화유적 I,
p. 64)



〈그림 53〉 여자 裳
수산리 벽화무덤,
(출처: 북한의문화재
와 문화유적 I,
p. 242)



〈그림 54〉 여자 裳
고산동10호무덤
(출처: 북한의문화재
와 문화유적 I,
p. 240)



〈그림 55〉 여자 裳
동암리벽화무덤
(출처: 북한의문화
재와문화유적 I,
p. 246)



〈그림 56〉 여자 裳, 안악2호분
(출처: 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I, p. 209)



〈그림 57〉 여자 裳, 안악2호분
(출처: 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I, p. 212)



〈그림 58〉 여자 裳
수산리벽화무덤(출처: 북
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I,
p. 195)



〈그림 59〉 여자 裳
덕흥리벽화무덤(출처: 북
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I,
p. 160)



〈그림 60〉 여자 裳 덕흥리벽화무덤
(출처: 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 I, p. 163)

· 상(裳) 만을 착용한모습은 찾아볼수가 없다.
그러나 평양지역의 고분에서는 잘게 주름잡힌 형
태의 주름치마(그림52~57)와 쪽치마(그림59~60),

색동치마(그림58)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그리고 평양지역에서는 포(袍)없이 유(襦)·상
(裳)만을 착용(그림52~53, 그림58~60)하기도 했

으며, 곁에 포를 착용(그림54~55, 그림56~57)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여인들의 보편적 모습이 유(襦)·상(裳)의 차림새 라고 생각했으나 집안지역 벽화에서는 유(襦)·상(裳) 만을 착용한 모습은 볼 수 없었으며 상(裳)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곁옷으로 포(袍)를 착용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포(袍)의 형태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집안지역과 평양지역 두 지역에서 고유포의 형태인 직령교임형의 포(袍)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직령교임형의 포(袍)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무용총벽화의 승려인듯한 사람이 입고 있는 포(袍) 뿐이다. 벽화속의 고구려 남자들의 옷차림은 직령교임형의 기본포를 착용하지 않은 유(襦)·고(袴)의 차림새 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두 지역에서 모두 유(襦)의 형태와 같은 길이가 긴, 선이 둘러져 있는 끈은깃의 직령교임형의 포를 착용했으며, 다만 여미형태에 있어서 집안지역에서는 주로 좌임형태로 평양지역에서는 주로 우세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집안지역 고분벽화 남자 옷차림으로는 주로 유(襦)·고(袴) 차림새 이거나, 유(襦)·고(袴) 차림에 배자형태의 옷을 덧입은듯한 차림도 있었다. 무용총, 각저총 주인공 옷차림 조차도 유(襦)·고(袴) 만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포를 착용한 모습은 거의 찾아볼수가 없었다. 집안지역 여자 옷차림은 유(襦)·고(袴) 차림새 이거나 유(襦)·상(裳)·포(袍) 차림새 였다. 포의 착용없이 유(襦)·상(裳) 만을 착용한 차림새는 찾아볼수가 없었다. 집안지역 여자 유(襦)의 형태는 끈은깃의 엉덩이 길이의 저고리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치마를 저고리 위로 입은 차림새도 있었다.

평양지역 벽화에서 보이는 남자의 옷차림 역시 유(襦)·고(袴) 차림새 이며, 상류층으로 보이는 일부계층에서 소매통이 넓고 품이 넓은 헐렁한 형태

의 포를 착용하고 있었다. 평양지역 여자의 옷차림은 유(襦)·고(袴) 또는 유(襦)·상(裳)만을 착용하거나 유(襦)·상(裳)·포(袍)의 차림새 였다. 남녀 유(襦)의 여미형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집안지역은 시대에 따라서도 좌임에서 좌임으로 나타났고 평양지역은 좌임이 혼합된 가운데 계속 우임이 우세함을 알수 있었다.

셋째, 여자의 고(袴) 착용에 있어서 집안지역의 무용총, 각저총, 삼실총, 장천1호분 벽화에서는 바지를 곁옷으로도 착용하고 있음을 볼수 있었다. 또한 평양지역의 수산리, 동암리, 안악2호분 벽화에서도 바지를 곁옷으로도 착용하고 있어 고구려시대 여자 기본복으로 유(襦)·고(袴) 차림새도 있음을 알수 있었다.

넷째, 여자의 상(裳) 착용에 있어서 집안지역에서는 잘게 주름잡힌 형태의 치마가 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안지역에서는 유(襦)·상(裳)만을 착용한 모습은 볼수 없었으며, 상(裳)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곁옷으로 포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양지역에서는 잘게 주름잡힌 형태의 주름치마와 쪽치마, 색동치마가 모두 나타났으며, 상(裳)만을 착용한 모습과 유(襦)·상(裳)위에 포(袍)를 착용한 모습 모두 볼수 있었다.

<표 3> 집안지역과 평양지역 복식 비교

지역 구분	집안	평양
男	①襦+袴	①襦+袴 ②襦+袴+袍
	두지역에서 모두 끈은깃의 고유포 형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女	①襦+袴 ②袴+裳+襦+袍	①襦+袴 ②襦+裳 ③袴+裳+襦+袍
	집안지역에서는 쪽치마, 색동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襦·裳 만의 차림새는 볼수 없었음	

이상과 같이 집안지역과 평양지역 고분벽화에 나타난 의복을 비교한 결과 남녀 옷차림새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지역간의 벽화에 나타난

복식의 형태와 차림새만을 비교하였으므로 그 원인에 관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각저총, 무용총, 통구제12호분, 마선구 1호분, 삼실총, 장천 1호분, 오회분4호묘, 오회분5호묘
- 2) 안악3호무덤, 갑신총, 덕흥리벽화무덤, 수산리벽화무덤, 안악2호무덤, 평양역전무덤, 고산동7호무덤, 고산동10호무덤, 동암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팔청리벽화무덤, 별무덤, 대안리1호무덤, 쌍영총, 수렴총, 개마총, 장산동1.2호무덤
- 3) 金英淑 編著 (1985). 韓國服飾史資料選集-上古·高麗篇. 東洋服飾硏究員.
- 4) 김미자 (1997).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 복식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4집, p. 495.
- 5) 김정호 (1999).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과 사회계층.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김정호 (1990). 고구려 고분벽화속의 복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 논문집 20.
- 7) 김미자 (1997).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본 고구려 복식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4집.
- 8) 박경자 (1968).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연구. 조기홍 선생 회갑기념 논문.
- 9) 박경자 (1981). 덕흥리 고분벽화의 복식사적 연구. 복식, 5.
- 10) 양경애 (1995). 고구려인의 복식문화 고찰-집안지역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복식, 25.
- 11) 유송옥 (1980). 고구려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계 논문집, 28.
- 12) 유송옥 (1985). 고구려의 복식구조. 한국의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 13) 유송옥 (1995). 중국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과 주변지역복식 비교연구. 성균관대 인문과학, 25.
- 14) 유효순 (1989). 고분벽화를 중심으로한 고대 우리 복식 연구. 혜전전문대 논집, 7.
- 15) 이경자 (1976).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연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28.
- 16) 이여성 (1949). 최근 안악에서 새로 발견된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 년대에 대하여. 역사세문제, 9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17) 이영미, 조효순 (1996).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복식연구-장천1호분과 오회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07.
- 18) 이영미 (1994).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복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전혜숙 (1995). 고구려 고분벽화의 조형적 특성과 복식의 표현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전호태 (1996). 고구려 각저총 벽화 연구. 미술자료, 57.
- 21) 천석근 (1981). 고구려 옷에 반영된 계급 신분관계의 고찰. 역사과,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22) 천석근 (1986). 안악제3호무덤의 복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23) 최옥자 (1981) 고구려 고분벽화(무용총,삼실총,신삼총,각저총)에 나타난 한국고대 복식에 대한 고찰. 세종대 논문집, 8.
- 24) 최원희 (1962). 고구려의 여자옷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과학원출판사.
- 25) 김 현 (1988). 고구려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사대 논문집, 26.
- 26) 김혜원 (1986). 고분벽화에 묘사된 복식의 조형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장경혜 (1990).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미의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장경혜 외 (1993).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미 연구. 영남대 자원문제연구논문집, 12.
- 29) 김혜진 (1978). 고구려 벽화 복식과 고송총 벽화 복식의 비교연구. 대전승전대학교 논문집, 8.
- 30) 김영희 (1984). 고분벽화에 표현된 복식형태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김영숙 (1966). 고구려 관모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 32) 김정호 (1989). 高句麗 古墳壁畵服飾과 社會階層.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1.
- 33) 김정호 (1990). 고구려 고분벽화속의 복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논문집, 20, p. 134.
- 34)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I (2000). 고구려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 35) 집안고구려 고분벽화 (1993). 조선일보사.
- 36) 고구려 고분벽화 (1986). 조선화보사.
- 37) 고구려 특별대전 (1995). KBS 한국방송공사.
- 38) 고구려문화전 도록 (1986). 고구려문화전 실행위원회.
- 39) 김원룡 (1973). 한국미술전집. 서울: 동화출판공사.
- 40) 최순우. 한국미술 I. 서울: 도산문화사.
- 41) ①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p. 102; 개인용 이경자(1983). 한국복식사론. 서울: 일지사. p. 87.
"포나 저고리 깃의 형태는 직령(直領)과 단령(團領)으로 대별된다. 직령은 V자 모양으로 여며진 깃을 말하며, 단령(團領)은 U자모양으로 여며진 것이다. 또한 직령중에서 V자형의 아랫모가 목에 바짝 올라붙은 모양을 곡령(曲領)으로 따로 구분하며, 단령중에서 목에 바짝 올라붙은 경우는 반령(盤領)이라 따로 구분하여 깃모양을 4종류로 분류하였다"
- ②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화사. p. 37.
"곡령은 둥근 목둘레를 뜻하는데, 앞이 완전히 막힌 튜닉형의 라운드 네크라인과 U네크라인, V네 크라인을 모두 포함하며 그 둥근 목둘레에 만다린 칼라를 달아 후에 단령으로 발전하는 우임곡령과 좌임곡령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 42) ① 이여성 (1981). 조선복식고. 서울: 백양당. p. 133.
"袍에는 腰襟을 사용치않고 一般으로 帶를 썼으며 領은 다가치 直領交襟式이고 襟은 裾에 있어서와 같이 袖口. 領. 裾에까지 둘러온 것이 보인다"
- ② 유희경 (1989).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대출판부. p. 30.
"포에는 옷고름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帶를 썼"

- 으며, 領은 다같이 직령교임식이고.....상대사회에 있어 공통되었던 포는 상하가 모두 입었으며...”
- ③ 백영자 (1993). 한국의복식. 서울: 경춘사, p. 23.
“상대 우리 나라 포의 기본형태는 유(襦)와 같아서 깃, 도련, 소매부리에 선(襖)이 둘러졌으며 직령교임식(直領校袿式)으로 허리에는 띠를 맨다”
- ④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p. 24.
“〈그림 1-13〉에서 남자 포의 기본형을 직령교임형으로 그리고 있다”
- ⑤ 안명숙, 김용서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p. 27.
“두루마기는 겹옷으로 귀족은 물론 평민까지도 모두 입었으며.....깃은 곧고, 넓은 겹치도록 옷을 여몄으며 [직령교임식]. 선을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깃, 도련, 소매 끝까지 드리웠다”
- ⑥ 김영숙, 김명숙 (1999). 한국복식사. 청주대출판부, p. 78.
“포는 높은신분의 귀인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착용하였는데 이 포는 방한용 뿐만아니라 의례용으로 입었다.....포의 깃은 V네크의 겹쳐입는옷(직령교임형)이 대부분이다”
- ⑦ 한국복식문화조직원회편 (2001). 우리옷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 15.
“고구려의 포는 주로 남자가 입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유형을 알 수 있다”
- 43) ① 유희경 (1975). 한국복식사연구, pp. 30~31.
“여러 史書에 있는 服飾關係의 記事를 보더라도 襦와 袴의 관한 것은 많으나 袍의 기사는 매우 적으며, 여러 古墳의 壁畫 人物들도 袍를 착용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② 이은창 (1978). 한국복식의 역사-고대편-.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88.
“고구려에는 포(袍)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없다”
- ③ 이해영 (1989). 한국 직령교임식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3.
“고구려 포에 대한 기록은 문헌에서도 찾아볼수가 없다”
- 44) 김정호. 고구려벽화에 나타난 복식연구-집안지역 여자 옷을 중심으로-. 한남대논문집, 32, p. 98.
- 45) 王宇清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마인이 착용한 곧은 깃의 교임형 반수단상의를 맥수라고 하였다. 맥수는 알타이족의 한갈래인 맥족에 의하여 자생한 기마,수렵의 용복이며 방한의이며, 이는 맥족의 지리환경 및 생활환경에 의해 자연 탄생된것이라고 하였다”-왕우청 (1967). 中國服飾史綱, pp. 69-70: 재인용 朴豆伊 (1997). 반비의 원류와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과 중국의 반비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6) 김미자는 상류층 남자들이 주로 착용했던 한화된 포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양식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상하가 허리에서 연결되고 수구·옷깃, 밑단에 이색선이 있고 소매에 책가 있는 포. 둘째, 소매가 넓고 상·하의가 이어지고 동색선을 댄 포. 셋째, 소매가 좁고 상·하가 이어진 것 같고 옷깃·수구·밑단에 선이 있는 포”
- 김미자 (1997).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 복식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 4, p. 505.
- 47) 밑단에 선이 있는 2개의 치마를 착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김미자 (1997).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 복식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 4, p. 505.